

01.출제의도

- 가) 비판적 사고력, 통합적 이해력, 창의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나) 건강,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문제를 출제한다.
- 다) 보편적 가치들(생명의 존엄성, 인류의 행복, 세계 평화 등의 공동체 가치)을 성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02. 평가기준

〈기본사항〉

가) 8등급으로 평가: A+, A0, B+, B0, C+, C0, D, F

※C0, D는 2등급 차이임

※F는 기본점수만 부여함

나) 내용 90%, 형식 10%로 구별해서 채점

다)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판정

라) 400자 미만의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내용〉216점

가) 사회 전체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반사회적 범죄의 피해자인 환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A의사의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음을 이해한다. (36점)

나) 목적론적 윤리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환자의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찬성의 근거로 제시한다. (90점)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토대로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사실, 의사가 자신의 업에 대한 명예와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비판의 근거로 제시한다. (90점)

〈형식〉24점

가)분량

- ①900자 초과 : 2등급 감점
- ②801자~900자 : 1등급 감점
- ③600자~700자 : 1등급 감점
- ④500자~600자 : 2등급 감점
- ⑤400자~500자 : 3등급 감점
- ⑥400자 미만 : F

나) 문장 구성과 표현 능력

①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정도에 따라 1~2등급 감점

②국어 사용상 오류가 있는 경우, 정도에 따라 1~2등급 감점

예시 답안

가)에서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피해자인 환자의 정보를 사회관계 서비스망에 무단으로 공개한 의사의 행위에 대한 논란이 드러난다. 그의 행위를 옹호하는 측은 반사회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익의 목적이 충분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의 행위를 비판하는 측은 의사로서 환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 윤리에 반하는 행위임을 제시한다.

목적론적 윤리론에 따르면, 도덕 평가의 기준은 그 행위가 사회 전체에 유익한 것인가이다. 행위가 통용되고 있는 윤리 규범에 어긋날지라도 그것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의사의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현 사회의 법체계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이라는 찬성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사생활과 정보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환자나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환자의 정보 공개는 정당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의사가 환자의 권리를 중시여기기보다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써 사건에 분노하거나 지나친 영웅심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환자의 개인 정보를 환자의 동의없이 대중에게 공개한다면 의사 본업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